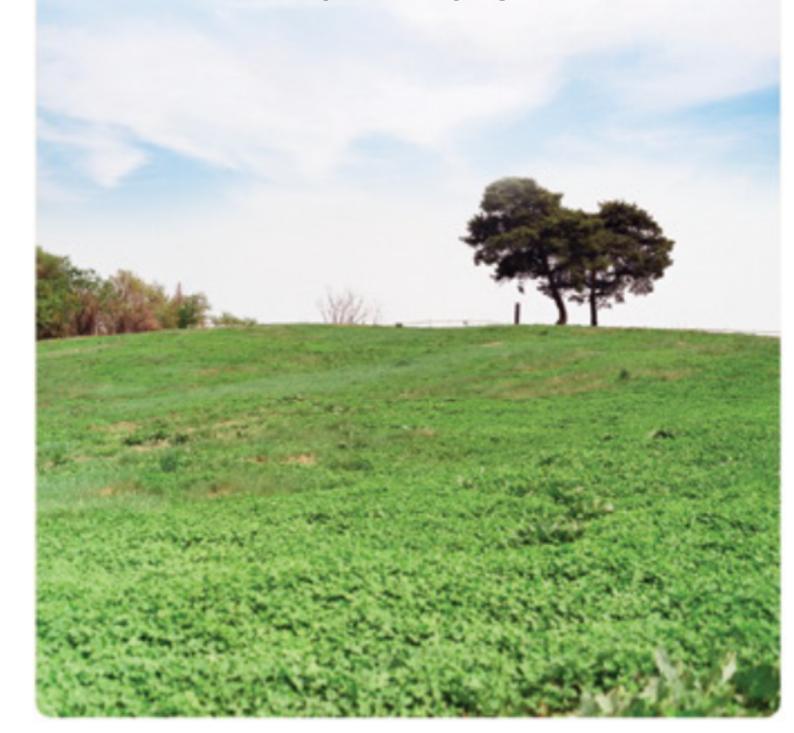


# 한국전주교 평신도시도직합의회 과당 경상 2 시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EL 02 · 777 · 2013 / 757 · 7851 FAX 02 · 778 · 7427

http://www.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

발행일: 2010. 3.8 발행인: 최홍준





## **(17)**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3  |
|-----------------------|----|
| 🥶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5  |
| 〉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6  |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7  |
| 〉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8  |
|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8  |
| 〉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9  |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10 |
|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10 |
| 〉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12 |
| 🥶 한국평협 회원 단체          |    |
|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 13 |
| 〉 한국가톨릭 간호사협회         | 13 |
| 〉한국 매리지앤카운터           | 14 |
|                       | 14 |
| 👉 교황님 말씀              | 15 |









◎ 한국평협 제1차 상임위원회의가 대전교구 합덕 유스호스텔에서 오는 5월 14일(금) ~ 15일(토) 개최됩 니다.







## 한국평협 제17대 회장에 최홍준 서울평협 회장 선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2월 27일 오후 서울 가톨릭회관 강당에서 열린 제43 차 총회에서 최홍준 파비아노(69) 씨를 제1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14개 교구 평협 대표와 12개 단체대표. 한국평협 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한국평협 정 기총회에서는 2009년 사업보고와 결산, 2010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원인대로 통과함으로써 올 해 개최될 아시아 평신도대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연이어 최홍준 서울평협 회장을 회 장으로 추대함으로써 최 회장은 한국평협 회장으로서 2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최 회장은 "이런 능력이 모자란 사람을 뽑아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린다"며 "하느님께서는 어떤 일을 맡기실 때 힘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오른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하느님을 전한다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기에 평신도 사도직 역시 사랑이신 하느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얼굴 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010년은 특히 '아시아 평신도대회' 등 굵직한 행사가 계획된 해로 오랜 교회 내 활동 경험을 토대로 한 최 회 장의 활약이 기대된다.

최 회장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경남대 행정대학원 북한학과를 졸업하고 오래 기간 한국방송공사(KBS) 프로 듀서 겸 작가로 봉직했으며.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회 회장.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사무총장과 부회장을 역 임하고. 현재 한국방송작가협회 감사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상임위원.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과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회 위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한홍순회장이 아시아평신도대회와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고

▲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주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교황청 평신도평의회 의장 리우코 추기경 방한 아시아평신도대회 점검과 세부사항 협의

교황청 평신도평의회 의장인 스타니스와프 리우코(Stanislaw Rylko) 추기경이 지난 2월 18일 방한하여 서울대교구 장 정진석 추기경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만나는 등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4일 로마로 귀국했다.

리우코 추기경의 방한은 올해 8월 31일부터 6일간 교황청 평신도평의회가 주최하는 '아시아 평신도대회'의 주최 측책임자로서 대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리우코 추기경은 이번 첫 번째 방한을 통해 한국의 순교성지인 절두산 성지와 봉은사, 판문점 등을 방문해 한국문화를 접했으며, 서울대교구의 한 본당을 방문하여 미사에 참례하고, 신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특히 지난 20일에는 아시아 평신도대회 한국 측 준비위원회와 모임을 갖고, 대회 개최 배경과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리우코 추기경은 "대회 자체도 중요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한국 평신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거듭 촉구했으며, 아시아 평신도대회가 새로운 성령강림이 될 수있도록 "세 개의 나침반" 즉,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 「아시아 교회」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교회의 선교사명」의 도움을 받아 친교로 일치해 준비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스타니스와프 리우코(Stanislaw Rylko) 추기 경은 1945년 폴란드 태생으로 1969년 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된 카롤 보이티와 주교에게 사제서품을 받고, 1987년부터 교황청 평신도평 의회에서 요직을 거쳐 2003년부터 의장으로 일하고 있다.

◀ 아시아평신도대회 준비회의에 참석한 리우코 추기경



▲ 회의 후 만찬장에서 아시아평신도대회 준비위원들과 기념촬영하는 리우코 추기경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40차 정기총회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최홍준, 담당 민병덕 신부)는 지난 1월 30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 서 제40차 정기총회를 열고, 2009년 사업과 결산, 2010년 사업과 예산안을 승인하고, 교구장이 지명한 회 장후보 최홍준 파비아노 씨를 제18대 회장으로 선출했 다. 이로서 새롭게 새 회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최 회 장은 '아시아 평신도대회' 등 굵직한 행사를 치르게 된 다.

최 회장은 당선인사를 통해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얼떨떨하다"면서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과 함 게 의논하면서 예수님의 현존 안에서 일하겠다"고 소감 을 밝혔다.



▲ 서울평협 총회 후 그동안 수고했던 전임원들과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 서울대교구가톨릭경제인회

## 제27차 정기총회 개최

서울가톨릭경제인회(회장 최철수 담당 조학문 신부)는 지난 1월 15일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제2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회원 7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는회의, 미사, 신년교례회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 안전은 2009년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 2010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어진 임원선출에서 현 최철수 회장이 유임되었으며, 감사선출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윤재원 감사가 피선됐다.

금년도 서울경제인회의 주요사업 중 가장 우선적인 것은 회원증강운동으로 각 회원들이 신입회원 영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테스크포스팀을 설치 하고 서울시내 각 본당별 회원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2.000여명을 초청하여 부활절 위안잔치 를 개최할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이주노동자 무료진료 소를 유영하는 라파엘클리닉에도 현금과 물품을 지원 할 계획이다. 작년 첫 해외지원 사업인 '과테말라 천사 의 집 지원 프로젝트'에 이어 올해도 해외 지원사업을 국제분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2010년 해외 지 원사업 대상 국가는 동남아시아 캄보디아로 이곳의 직 업훈련학교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독립과 직업정신 고 취 및 전인교육의 사업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 외 6 회째 실시해온 쌀나눔(나눔은 희망입니다) 행사도 작년 과 같이 교구 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가정. 차상 위 계층을 대상으로 서울 빈첸시오회, 사회복지회와 함 께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는 주요 사업별 담당 부회장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담당 부회장이 중심이 되어 소관분과와 사무처의 실무지원을 받아 행사를 기획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운영체제이다.

총회에서 최철수 회장은 나눔과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신앙인의 사명이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할 가지 라며 나눔과 사랑실천에 더 정진하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 서울대교구 여성연합회

## 제44차 정기총회

서울대교구 여성연합회(회장 권경수, 담당 민병덕 신부)는 2010년 1월 26일 명동성당 문화관 소성당에서 52명이 모인 가운데 제44차 총회를 개최했다. 담당 민병덕 신부의 주례로 미사집전 후 총회를 이어갔다.

권경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하느님의 은총 감사드리





며, 선대회장, 이사, 봉사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2009년 행사에 대해 짧게 평가하며 "아시아태 평양대회를 개최한 것은 한국에서 최초로 여성대회를 한 것이기에 역사요, 사건이라 할 수 있다"고 소감을 밝 혔으며, "태아발 배지 나눠주기 행사는 생명은 하느님 이 주신 선물임을 알리는 것이다. 이러한 행사로 가톨릭 여성연합회가 앞으로 나아갈 생명운동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했다.

총회에서는 2009년 사업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사업계획(안)과 2010년도 예산(안)보고를 하였다. 2010년 사업계획으로 서울대교구의 생명수호운동 활성화를 위해 가톨릭여성연합회가 함께할 것이며, 9월에는 아시아평신도대회, 10월에는 생명운동, 세계가톨릭여성 100주년 총회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4월 11일(일) 바자회 홍보와 감사의 말씀으로 총회를 마쳤다.

총회에 앞서 오덕주 오름회 회장이 지난 오름회 총회 와 "풍요로운 노년"의 저자 제스 브레냐신부님을 모시 고 한 출판기념회에 대해 짧게 보고했다.

## 2월 정기월례회

지난 2월 23일 명동성당 문화관 소성당에서 가진 정기월례회에서는 김동일 요한보스코 신부를 모시고 사랑과 생명에 대한 주제로 생명수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교육을 실시했다. 김신부는 교회의 어머니, 어머님 사랑과 연관하여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강조하고 여성연합회가 교회의 어머니로써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mark>수원</mark>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10년 상반기 교구장님과의 만남과 총회장연수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태경, 영성지도 문희종 신부)는 1월 30일(토) 오전 9시부터 교구청 지하 대강당에서 2010 상반기 교구장님과의 만남 및 총회장 연수"를 가졌다.

각 본당 총회장과 평협 임원 등 17()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시작기도와 인사(교구평협 정태경 회장) ▲바오로딸의 피정선교 프로그램소개(선교담당 고 아순따 수녀) ▲교구50주년 준비위원회 및 준비상황설명(복음화국장 문희종 신부) ▲대건청소년에 대하여(청소년부국장 한성기 신부) ▲한마음운동과 사회복음회에 대하여(사회복음화국장 최석렬 신부) ▲교구장 이용훈 주교 말씀 ▲파견미사로 진행되었다. 미사 중에는 6명의 각 대리구 신임 본당 총회장 대표의 배지 증정식이 있었으며, 각 대리구 평협회장단과 교구평협임원들의 소개가 있었다.

정태경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구장 사목교서의 중점 사목방향인 새복음화의 내 외적복음화실현과 교구 중 점실천 목표인 청소년사목체계구축의 실현은 수원교구 평신도의 기도와 관심이 성공의 열쇠"라고 하며 "특히, 총회장들이 각 본당에서 지구 및 대리구에서 봉사자역 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했다.

미사에서 이용훈 주교는 "총회장으로 당신 사명을 수행하도록 당신의 도구를 부르셨음에 합당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은총과 굳은 신앙심을 미사 중에 청하며, 가정과 본당에서 평화의 사도들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이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크고 작은 십자가를 극복하는 총회장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오후 강의에서 이 주교는 "총회장은 소공동체 활성화에 적극적이며 봉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내외적인 일을 잘 알고 타인에게 표양이 되는 사람이 총회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명예가 아닌 순수한 봉사직으로 본당 사제들을 도와 보좌하고 하나되는 모습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 2010년부터 2012년 까지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사목지침인 청소년 사목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면서 "청소년들이 앞으로 우



▲ 대리구 신임 본당 총회장의 배지 증정식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리 교회, 사회, 나라를 책임질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청소년들의 눈높이와 욕구에 맞춰 이제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원하는 다양한 계획으로 다양한 모임의 기회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전하며 "본당, 대리구, 교구가 준비하여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이고민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교리교사, 본당 총회장, 봉사자들, 수녀님, 신부님을 대화상대로 찾아올 수 있게 하자"고 설명하였다.

이날 홍보부에서는 평협에서 발행하고 있는 평협소식 지와 위로의 샘의 발전에 대한 모색으로 본당 총회장들 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2010년 총회장 하반기 연수는 7월 3~4일에 있을 예정이다.

## 2010년 평협 및 제단체 사목방문



교구 평협 및 제 단체 사목방문이 2월 5일 교구청 지하대강당에서 열려,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임원을 비롯한 교구 19개 단체의 임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년도 활동 내용을 점검하고, 2010년도 사업 계획을 교구장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3시간 가량 진행된 이번 사목방문은 교구평협 정태경 회장의 시작기도와 인사말, 교구장 이용훈 주교의 말씀, 평협 및 단체보고, 총평, 영성지도 문희종 신부의 공지 사항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평협에서 교구 영성관 건립 을 위한 기금 1억원을 교구장 이용훈 주교에게 전달하기 도 했다.

정태경 회장은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창설에 주역이 된 한국 평신도 순교성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도직에 앞장서며, 교구장 중점 사목 방향과 실천목표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한다"며 "본당에서나 교구에서 책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용훈 주교는 "평협과 제단체는 교구민과 교구의 큰

기둥과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치하하며, 교 구 복음화 실현을 위하여 실행하는 중점 사목인 새 복음 화, 내적 복음화, 외적 복음화의 실현과 중점 실천목표 인 청소년사목에 대하여 평협과 제단체에서도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각 단체로 부터 보고를 받은 후 총평을 통해 각 단체의 실적과 계획에 대해 상세한 질문과 함께 격려로 방향을 제시했으며, 더욱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계획과 함께 회원 성화에도 힘쓸 것을 강조했다.

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유영흥, 영성지도 문희종 신부)에는 간호사회, 경기도공무원교우회, 경기 도의회 대건회, 꾸르실료, 노인대학연합회, 농민회, 레 지아, 마라톤동호인연합회, 메리지엔카운터, 미술가회, 법조인회, 사진가회, 성령쇄신봉사회, 성빈첸시오아바 오로회, 약사회, 여성연합회, 연령회연합회, 운전기사 사도회, 의사회, 전례꽃꽂이연구회, 지속적인성체조배 회, 축구선교연합회,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등 총 23개 의 단체가 소속돼 있다.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신년교례회 주관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종해, 담당 김영호 신부)가 주관하는 대구대교구 신년교례회가 지 난 1월 1일 열였다. 조환길 주교, 하성호 사무처장 신 부, 담당 김영호 신부와 각 제 단체 담당신부, 각 본당 평협 회장단, 제 단체회장단, 상임위원, 제단장 등 평신









#### 청주 ·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도 220명 정도가 참석했다.

100주년 기념 기도문을 시작으로 조환길 주교의 입장 에 이어 새해 축복식과 참석자들의 새해 인사로 진행됐 다. 이어 조주교의 새해 인사말과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선교대상 시상식이 있었다. 시상식에서 선교 최우수 본 당으로 옥계성당이 수상했고. 개인 최우수상은 흥해성 당에 김민자 마틸다 자매가 수상했다.

시상식 후에 가톨릭 남성합창단의 멋진 축하공연으로 시상식을 더욱 빛냈으며, 이어 조주교를 시작으로 윤회 악수를 하며 서로의 평화를 빌어 주었다.

인사가 다 끝난 후 김종해 평협 회장의 케이크 커팅과 하성호 사무처장 신부의 건배제의로 다과회를 시작했 다. 다과회 중 색소폰 공연으로 흥을 돋우며 마지막으로 다 같이 둘러서서 사랑으로 노래를 합창하고 조주교의 강복으로 행사를 마쳤다.

또한 감사에는 주교좌 본당의 배상환 베네딕도 평협 회장과 이문재 로벨토 초중본당 평협회장이 선출되었으 며,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조광호 베르나르도, 곽승 호 프란치스코, 정창호 요셉, 이덕순 로사리아, 이보영 베드로, 사무국장은 이재문 대건안드레아를 총무부장에 는 고흥렬 요한을 임명했다.



## <mark>청주</mark>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33회 정기총회 및 본당 평협회장단 · 구 활동 단체장 연수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업택, 담당 최광조 신부)는 지난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교 구 연수원에서 본당 평협회장단 교구 활동단체장 연수 및 제33회 교구평협 정기총회에서 2년간 교구평협을 이 끌고 갈 정업택 현회장을 제16대 회장에 연임 선출했다.

정회장은 지난 2년간 교구의 많은 행사와 1998년 교 구설정 50주년 기념미사를 성공적으로 치루고 그 일환 으로 감곡의 매괴 성모성지의 매괴성모님을 모시고 교 구내 65개 본당과 20개의 공소를 순회방문하는 행사를 주관했다. 또한 작년 교구가 주최하는 전국평협 상임위 원회를 꽃동네 수련관에서 2일 일정으로 성공리에 마치 는 등 그 외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구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다. 본당 총회장과 단체장들의 적 극 추천으로 연임하게된 정회장은 교구설정 1()()주년을 향하여 나가는데 초석이 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 마사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정기총회 및 순교영성세미나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강신근, 담당 이 형수 몬시뇰)은 1월29일(금)부터 30일(토)까지 마산가톨 릭교육관에서 본당회장단 및 교구단체장등 195명이 참 여하여 『정기총회 및 순교영성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부 복음화대상 시상, 제2부 교구장사목교서 해설. 제3부 순교영성세미나. 제4부 정기총회로 편성하여 1박 2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교구장 안명옥 주교는 사목교서 '순교영성으로 세상







####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의 복음화를...'에 대한 의미와 해설 그리고 미사를 집 전하고 교구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 비전1030운동과 교구복음화를 위하여 제정한 복음화대상 시상식에서 수 상자들에게 상패와 포상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복음 화대상은 선교대상'과 회두대상'부문으로 나누어 개 인과 단체(공동체)로 구분하여 시상을 함으로서 비전 1030복음화운동에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교구장 사목교서는 지난 3년 동안 봉사와 증거의 삶'으로 복음화를 지향하였으며 이제부터는 순교영성으로 세상복음화'를 완성려는 교구장의 사목계획에 평신도지도자들이 먼저 순교영성으로 복음적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다짐'을 교구장께 선언하는 봉헌의식을 가졌다.

특강에서는 순교영성'으로 평신도사도직의 사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먼저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순 교영성으로 무장하여 평신도운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담당사제 이형수 몬시뇰의 강의와 묵상과 기도 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전년도 재정 및 사업보고와 2010년 도의 사업과 예산승인에 이어서 제21대 총회장을 선출하였다. 강신근(안드레아)회장이 연임되고, 수석부회장 김황성(바오로), 여성부회장 정영자(세레나), 감사 김인용(미카엘), 백균철(바오로)를 선출하였다. 강신근 회장은 새로운 임원을 구성하여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평신도운동의 비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평신도의 사명으로 평신도의 시대를 실천하기를 당부했다.

## <mark>안동</mark>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교구 신년인사회 주관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동진, 담당 안 상기 신부)에서는 2010년 1월 4일 목성동 주교좌성당에 서 교구장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와 교구 사제

단의 공동집전으로 가진 교구 신년인사회를 주관했다. 제1부 미사와 제2부 신년인사. 제3부의 교구40주년 실 천사항 다짐으로 이어진 신년인사회는 갑작스런 폭설 로 인해 교구의 모든 본당이 참여하지는 못했으나 교구 설정 40주년을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교구장 사목지침인 "서로 나누고 섬기며 하느님의 뜻대 로 살아가는 교회"를 실천할 결의를 다졌다. 정동진 프 란치스코 평협회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올 한 해도 하 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모든 분들의 기정에 끊임없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흘러넘치시기를 기원"하면서 "교 구장님의 사목지침인 서로 나누고 섬기며 하느님의 뜻 대로 살아가는 교회 가 되도록 하는데 봉사자로서의 역 할과 소명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하고 "우리 안동교 구는 신앙선조들의 훌륭하신 삶의 못자리라고 할 수 있 다. 농은 홍유한 선생의 수덕생활과 깔레 강 신부님과 박상건 마티아 순교자의 친교와 순교정신을 본받아 주 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자" 고 강조했다.

#### 사목임원 연수

안동교구 평협에서는 2010년 1월 30일에서 31일까지 교구 피정의 집인 농은수련원에서 사목임원 연수를 가졌다. 교구의 각 본당 사목임원과 교구 신심단체의임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회는 서로 나누고



섬기며 사는 기쁨을! 이라 교구장 사목교서의 제목을 주제로 삼았으며 친교의 가정(수원교구 복음화국 이응훈), 친교의 교회(교구 사목국장 안상기 신부), 사회적 친교(원주교구 황종렬 박사) 등의 강의를 듣고 분임토의를 통해 "모든 계층 간에 서로 나누고 섬김으로 친교의 공동체를 실현하자"고 다짐했다. 또한 공동 관심





사를 나누는 시간에는 평협이 주체하고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는데, 특히 5월에 개최하는 교구장배 체육대회는 교구민의 친교를 다지는 행사가 되도록 하자고 했으며, 평협 하계연수는 안동교회사연구소와 공동으로 성지개발 및 순교자 연양을 위한 심포지엄을 가지기로 했다. 그리고 9월의 순교자 현양대회와 10월의 교구장배 게이트볼대회 등에 대한 협의도 가졌다. 교구장 권혁주 주교는 파견미사 강론에서 "나눔과 섬김의 원천은 하느님의 사랑이며, 다른 말로 친교의 삶이라할 수 있다."고 하시며 "지난해 교구설정 40주년을 마무리하면서 나눔과 섬김을 교구의 오늘과 내일을 특징짓는 삶으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 <mark>광주</mark>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평협 · 여성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서정권, 담당 박성열 신부)는 지난 1월 30일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





교육원에서 제39차 정기총회를 갖고 2009년도 활동과 결 산보고, 2010년도 사업 및 예산안을 승 인했다.

▲ 서정권 평협회장 ▲ 고문희 여성위원장 또한 제31대 회장 단 선출에서 서정권 베드로 형제가 선출되었으며, 여성 위원회(위원장 고문희, 담당 박성열 신부)도 1월 23일

제6차 정기총회를 갖고 제4대 위원장으로 고문 희 포카스 자매를 선출 했다.

이로써 평협과 여성 위원회는 신임 회장, 위 원장을 주축으로 새로운



위장을 주축으로 새로운 ▲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로부터 임명장을 받는임원진

임원진을 구성하여 2월 18일 교구장이신 최창무 대주교 의 임명장을 받고 힘찬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 임원연수회 각 지구별로 열어

2010년 교구장 사목교서에 따른 "새로운 복음화의 해"를 실행하기 위해 각 지구별로 임원연수회를 개최하여 박성열 사목국장 신부와 각 지구장 신부의 특강, 분임토의를 통해 각 본당의 사례들을 듣고 의견들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 나주지구 : 1월 31일, 함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200여 명 참석 ▶ 서부지구 : 2월 7일, 염주동 성당, 170여 명 참석 ▶ 순천지구 : 2월 21일, 조례동성당, 160여 명 참석 ▶ 여수지구 : 2월 28일, 문수동 성당, 80여 명 참석



▲ 서부지구 연수회 후 기념촬영을 하는 참석자들

# <mark>전주</mark>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신년하례미사

전주교구 신년 하례식이 1월5일(화) 오전 10시30분 전주 중앙주교좌성당에서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 회(회장 강상근, 담당 유장훈 몬시뇰)주관으로 거행됐 다.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교구장 이병호 주교 주례와 교구사제단 합동으로 봉헌된 신년 하례미사와 세배, 나눔 잔치(차와 떡)등으로 진행된 이날 하례식에는 전날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 많은 신자들이 참석하지 못했으나, 80여 명의 성직자들을 비롯해 수도자, 평신도, 재경 전주교구 후원회원 등 총8백여 명 정도가 참석했다.

영성체 후 마침 기도에 이어 화동들이 교구장께 꽃다 발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된 하례식은 주교님께 세배, 사 제들에게 세배, 그리고 평신도 상호간 세배 순으로 진행 됐으며, 미사 후 참석한 모든 신자들은 차를 나누며 평 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 제공한 떡을 선물로 받았다.

교구장 이병호 주교는 "하느님의 또 다른 이름은 사 랑 으로 우리 자신이 사랑 에 얼마나 가까이 접근 했느 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그냥 지나가든지 아니면 영원히 남든지 한다." 며 " 사랑 을 올 한 해 뿐만 아니라 일생 의 화두로 삼아 살아가자."고 강론을 통해 새해 신년사 를 발표했다.



## 은퇴사제 설명절 인사

전주교구 평협 간부들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원로 사제인 박영규, 김치삼 신부와 외국 원로 사제로서 반평생을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사제로서 사목 활동하신 지정환 신부, 배영근 신부, 윤에릭 신부와 9분의 은퇴 사제를 방문하고, 세배와 덕담을 나누고 사제로서의 삶을 잘마무리 하고 계심을 직접 체험하면서 유익하고 소중한시간 속에서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심을 감사드리며 영육간에 건강하심을 기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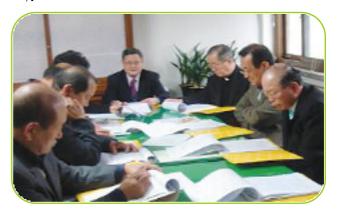
#### 상임 · 운영위원회 회의

전주교구 평협은 2010년 2월 20일 오후 4시에 평협

9개 지구 상임위원, 평협운영위원의 마지막 회의를 통해 2009년 감사보고 및 결산보고서를 심도 있게 심의해 만장일치로 승인했고, 이어서 2010년 사업계획안,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도 심의해 2009년도 사업에서 활동이 미약했던 점을 보완하고 평협의 분과별 사업과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2009년 평협 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끝나므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임원선출 안건으로 회의가 시작되어 21대 회장 추대를 위한 상임위 임시의장으로 최고령자이신 최병오(베드로)형제이 추대되어 21대 회장 및 감사 추대를 위해 회칙 12조1항과 회칙 제11조 1항에 의거 회의를 진행했다.

먼저 21대 회장으로 현재 2년 동안 수고한 강상근(미카엘)회장이 재임 추천 되어 만장일치로 찬성 연임하는 것으로 선포되었고, 이어 감사 선출에서는 회칙 제11조 1항에 의거 특별한 규제 사항이 없으므로 현재 2분이 감사로 재임할 것을 동의로 제청하여 전 임원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고 상임 운영위원회를 마쳤다.







#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10년도 정기총회 및 연수 개최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문덕영, 담당 고 병수 신부)는 2월20~21일 성 이시돌 피정의 집에서 2010년도 정기총회 및 연수회를 열었다.교구장 사목지 침 기장이 솔선수범하는 소공동체 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총회는 교구평협 상임위원. 각 본당 사목평의회 임원, 교구단위단체장등 23개 본 당. 8개 단체 103명이 참석 했다.

첫 날 말씀의 전례(성서 안치식)에 이어 본당 및 단위 단체별 2009년도 사업결과와 금년도 사업계획 발표. 정기총회, 친교의 시간, 둘째 날은 미사에 이어 문창우 신부(광주가톨릭대학교 교수)의 특강 세상속의 그리스 도',에 대하여 제 1강의 '나부터 복음화', 제 2강의 우 리가 교회다'를 듣고 특강 내용에 대하여 그룹별 나누 기와 발표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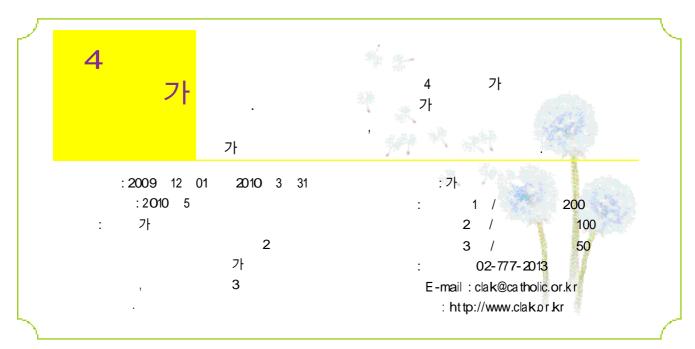
2010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가족과 함께 올레길 걷기 (4월 10일), 교구성모의 밤 개최(5월 20일), 평신도를 위한 특별 강연회(6월 19일). 평협 30년사 발간 등을 추 진하기로 했다.



## 제주교구 여성연합회 2010년도 정기총회

제주교구 여성연합회(회장 이성향, 지도 고병수 신부) 는 2월 16일 오전 10시 가톨릭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 고 한영순(지나, 동광본당)자매를 2년 임기의 새 회장으 로 선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2009년도 결산과 2010년도 사업계 획 및 예산안 심의에 이어 감응열 신부(청주교구 감곡본 당 주임)의 특강 성숙한 신앙인'과 파견미사 순으로 진 행됐다





회원단체 소식

##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 레지오 마리애 1단계 제4기 교육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단장 한휘운, 담당 민병덕 신부)는 1월 22-24일 2박3일 동안 의왕시 소재 아론의 집에서 1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레지오 마리에 1단계 4기교육을 실시하였다. 1단계 교육은 레지오 마리에 단원들이 가톨릭교회를 더욱 잘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구세사'를 시작으로 교회론', 성사론'과 순교자 영성' 강의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써 알아야하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교육을 받았다. 민병덕 신부는 파견미사 강론에서 "레지오 마리에 1단계 교육을 계기로 소성무일도 기도와 매일미사 참례를 생활화하는 성숙된 단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국가톨릭 간호사협회

## 제32회 정기대의원총회, 제47회 전국이사회 및 피정 개최

## - 제16대 회장에 채계순 데레사 수녀 선출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는 제32회 정기대의원총회, 제 47회 전국이사회 및 피정을 전국 14개 교구에서 120명





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2월 6일(토)에서 7일(일)까지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강의실,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09년도 사업 및 회계보고와 2010년 사업계획 안과 예산안을 심의하며, 제16대 회장

단 선거가 있었다. 이에 앞서 1월 12일 회계 및 업무 감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새 회장단은 회장에 채계순 데레사 수녀(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간호국장), 제1부회장 김복자 바울라(울산의대 임상간호대학원 교수), 제2부회장 박호란 데끌라(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감사는 김남초 세실리아(15대 회장,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황경자 요안나(전 명지병원 간호부장)님이 선출됐다.

총 24명(중앙 이사 10명, 당연직 이사 12명, 참관인 2명)이 참석한 전국이사회에서는 5개의 안건이 처리되었는데, ① 총회 일정 및 장소는 현행대로 서울에서 1박 2일(토~일) 일정으로 하는 안이 결정되었고 ② 담당사제변경 건은 현재 가톨릭 중앙의료원장이신 이동익 신부가 알려주기로 했다.③ 신입회원으로부터 받는 입회비 1,000원을 없애는 안이 통과 되었으며 ④ 회원 증원과홈페이지 회원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는 ▲각 기관별로책임자를 선정하여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방안 ▲평생회원으로 등록하는 방안 ▲가톨릭 신자인 간호 부서장을확인 ▲각 기관별 순회 미사 시에 저녁 나눔을 교구에서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하기로 했다.⑤ 가톨릭가정간호사회(가칭)를 한국 가톨릭간호사협회의 산하단체와 조직으로 하는 안에 대하여는 이사 전원에 의해 통과되었다.

전국이사회는 해마다 실시되는 정기대의원총회와 전



회원단체 소식

국 가톨릭간호사 피정 시 연2회 개최되고 있다. 전국 14 개 교구의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어 전국이사회 에 반드시 참여할 의무가 있다.

"치유와 구원"의 주제로 이동익 신부(가톨릭중앙의료 원장이며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지도신부)의 미사와 특 강이 실시됐으며, 건강 오락 프로그램임 친교의 시간도 마련됐다



# 한국 메리지 앤카운터

## 2010년 한국ME상반기 총회.

- 다문화 가정 주말 교구별 확산
- 어르신 대상 시니어 주말 시범 실시도

매리지 엔카운터(ME)한국협의회(대표팀 김태성·김 희숙 부부. 최준웅 신부)는 2월 28~3월 1일 서울 한남 동 꼰벤뚜알 프란치스꼬 피정의 집에서 상반기 총회를 열고 다문화가정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ME 주말을 교구별로 확산시키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서 안동 ME협의회는 올해 한국ME연구 소와 문경시 지원으로 오는 6월 27~28일 안동 농은수 련원에서 다문화가정 15부부를 초대해 주말을 실시한다 고 발표했다.

청주ME협의회도 보혈선교수녀회와 청원군청 다문화 가정센타 지원으로 3월15일. 다문화가정 5부부를 선정 해 시범 실시한다.

수원ME협의회는 5월 21일 다문화 가정. 친정 돼주 기'를 주제로 다문화가정 부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 시할 계획이며, 원주 ME협의회도 교구이주사목위원 회 민족화해위원회가 6월 9월 실시하는 다문화 가정 홈스테이'와 새터민 가정 추석 한마음 잔치' 행사를 적 극 지원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정 ME주말은 2007년 9월 광주ME가 처음 실시해 호응을 얻은데 이어 이듬해 8월 제주ME가 교구 이주사목위원회와 공동으로 실시했으며, 이후 타 교구 로 퍼지고 있다.

또 고령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어르신을 위한 시니 어 주말을 노년층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 시한 후 평가작업을 거처 어르신 주말 프로그램을 실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0여 년간 인터넷과 리플릿이 활용되면서 중단 됐던 성가정을 위한 ME 소개모임 도 일부 교구에서 부활되면서 주말 신청자가 늘어난다는 소식에 교구별로 이를 확대시키기로 했다.

특히 ME 서서울협의회(대표팀 박귀배,홍경애 부부, 유종만 신부)는 지역 내 본당사제들의 협조로 지난 1년 간 본당미사 강론을 통해 소개모임을 실시한 결과 평년 보다 20% 주말수강부부가 늘어나 본당사제들의 적극적 인 협조 하에 소개모임을 꾸준히 실시해 가기로 했다.

이어 한국ME는 지난 해 아시아ME 및 한국ME에서 보급한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영상프로그램들이 큰 호 응을 얻어 요청이 쇄도해 저작권 문제 등을 검토한 후 본당에 까지 확산 시켜 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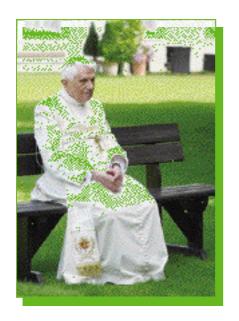
전국 15개 교구 ME 대표부부 및 한국 ME상임위 사 제와 부부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는 지난해 8월 일 본에서 개최된 제34차 ME 아시아회의 주제 각자 이름 으로 부르심'으로 ME 부부로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어 떻게 응답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프로 그램도 실시했다.



▲ 전국 15개 교구 3개 지역협의회 ME대표 및 한국ME상임위 시제와 부부들이 28일 서울 한남동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피정의 집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교화님・말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2010년 3월 7일, 사순 제3주일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에게 하신삼종기도 훈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시순시기 셋째 주일인 오늘 전례는 우리에게 회개를 주제로 제시합니다. 탈출기에서 따온 제1독서에서 모세는 양 떼를 치고 있는 동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러 가까이 다가 가는데 한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해 주며 그의 차림새가 알맞지 않으니 신발을 벗으라고 일러 줍니다.

그 목소리가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리고는 이어서 "나는 있는 나다." (탈출기 3.6a. 14) 하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도 다양하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현존을 알아보려면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깊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분께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 지 않으면 그 분을 만나 뵙고 그 분과 친교를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가 적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도 우리를 훈계하시기 위해 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느님께서는 능력 있고 우아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 앞에 초라하고 미 천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복음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비극적인 사건, 곧, 본 시오 빌라도의 명에 따라 성전 안에서 갈릴레아 사람들 여러 명이 죽 임을 당한 사건, 탑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을 덮친 사건(루카 13,1-5 참조)에 대해 아시게 됩니다.

이러한 불행이 하느님이 내리신 벌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여기는 안이한 생각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는 선하시고 불행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므로 그러한 일과는 무관하시다는 것을 선언 하십니다. 그리고 불행을 그 것을 겪는 사람이 저지른 잘못의 직접적 결과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주의를 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갈릴래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래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루카 13, 2-3)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건들을 회개라는 시각에서 달리 파악하도록 권하십니다. 불행한 일들, 비극적 사건들은 우리에게 호기심이나 누구 탓인가를 찾으려는 태도를 불러 일으켜서는 안 되고 성찰하고, 하느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이겨내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생활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기회가되어야 합니다. 죄 앞에서 하느님께서는 자비로 충만한 분이심을 드러내 보이시며 죄인들이 악을 피하고 당신의 사랑 안에 살도록, 곤궁에 시달리는 이웃을 구체적으로 도와 주도록, 은총의 기쁨을 생활하도록, 그리하여 영원한 죽음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끊임 없이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회개하려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신앙의 관점에서 인생의 사건들을 파악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고통과 비탄을당할 때, 참된 지혜는 생존이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가를 자문해 보며 하느님의 눈으로 인간의 역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오로지 당신 자녀들의 유익만을 바라시지만 당신 사랑의 헤아릴 수 없는 계획으로 이들을 더욱 큰 유익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때로는 이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순시기의 여정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님께 그리스도인한 사람 한 사람이 충심으로 주님께 돌아 오도록 도와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악을 끊어 버리고 우리 삶에서 신앙으로 하느님의 뜻을 받아 드리려는 굳센 의지를 북돋아 주소서.